

경제

광주 뉴모텍·기린정밀·영림전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

협력업체 육성 프로그램 대상 전국 30곳 선정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글로벌 중소기업'(중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광주지역 협력업체 3곳이 지원대상 후보업체로 잠정 선정됐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경영 실천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협력업체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후보업체 30여곳을 선정했으며 광주지역에선 국내 가전 모터의 원조인 '뉴모텍'(대표 전홍기)과 가전용 프레스 선두기업인 '기린정밀공업'(대표 장진선), 가전용 프레스 전문업체인 '영림전자'(대표 김정기) 3곳이 포함됐다. 3곳 모두 삼성

전자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세탁기의 주요 부품업체로 각각 모터와 세탁기 프레임, 전자기관을 공급하고 있다.

후보업체는 생활가전을 주로 담당하는 광주지역 업체 3곳 외에도 반도체와 무선통신 등 다양한 사업분야의 협력사들이 선정됐으며 삼성전자는 이들이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업체들 외에도 많은 협력업체들과 지원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며 "최종 지원 대상이 언제 결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으로 육성될 후보기업들

은 당장 이달부터 삼성전자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과제 실행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기업별로 연도별 목표를 정해 분기, 반기, 연간 등 시기별로 달성 정도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로부터 평가받고, 그 결과는 이견회 회장에 게까지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이례적 상생방안은 문제 발생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식이었지만,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과 함께 기술과 자금, 경영 인프라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 파악, 적기 지원하는 식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50개의 협력업체를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키워낼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원자재가 변동 부품단가 반영을 위한 '사급제' 도입 ▲1조원 규모 협력사 지원펀드 조성 ▲2·3차 협력사 종합지원책 마련 ▲중소기업 중견전문인력 구직 지원 ▲우수협력사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협력사 문화 확대 ▲공동 기술개발지원센터 마련 등을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으로 선정해 왔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관계자는 "아직 본사 상생협력실에서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중소기업 육성은 상생경영 7대 방안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로드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두 맛 보세요” 1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매장을 찾은 고객이 자두를 맛보고 있다. 비타민A가 풍부한 자두는 간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아파트 거래 건수 년말 연속 감소세

최근 아파트 거래건수가 비수기를 맞아 연말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실적거래가 대체로 약세가 이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적거래건수는 총 4만2718건으로 전월(4만6885건) 대비 8.9%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5만9천142건) 이후 연말 연속 감소세로 휴가철과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의 3만2227건에 비해서는 32.6%, 지난 5년(2006~2010년) 동월 평균치인 3만8760건에 비해 10.2% 늘어난 것이어서 예년에 비해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영호 지적공사 사장 來光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17일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김 사장은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전남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광산지사와 나주지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글, 모토로라 인수 ... 휴대폰 시장 지각변동 삼성·LG '기대' '우려' 교차

구글이 모토로라 모바일리티를 인수하며 휴대전화 제조업에도 뛰어 들게 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사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모토로라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방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아직 속단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구글의 CEO 래리 페이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HTC 등 파트너사 CEO들의 환영 메시지를 공개했다.

래리 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은 "구글의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으며, LG전자의 박종석 사장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방어하기 위한 구글의 헌신을 환영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 인수 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과 LG의 이 같은 모호한 반응은 이번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건이 향후 구글의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방증한다.

공정적인 영향은 모토로라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특허 소송으로 수세에 몰린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계열 제조사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무선기와 비파, 휴대전화로 글로벌 무선시장의 전봉적 리더로 평가받는 모토로라는 무선통신과 관련해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구글이 모토로라 휴대전화 사업에 힘을 실으며 개방정책을 접고 애플처럼 폐쇄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할 경우 삼성과 LG 등 안드로이드 계열 제조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모토로라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우선 제공받아 신제품 개발에 나서면 삼성과 LG로서는 애플 못지않은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에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바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독자적인 OS(운영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에만 목을 매고 있다가 만일 구글이 폐쇄적 전략으로 돌아서면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이번 모토로라 인수 성과를 범 안드로이드 진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모토로라 휴대전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속단은 이르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연합뉴스

“유지비 적게 드는 차”

현대기아차가 최근 호주에서 호평을 받으며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주 자동차 보험연합회(Australia's Motoring Clubs)가 발표한 '2011년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Low Cost Ownership)에 현대차 i30, 스타렉스(현지명 iMax), 기아차 스포티지R, 쏘렌토R 등이 차급별 1위에 올랐다.

호주 자동차 보험연합회는 RACV(멜버른), RACQ(브리즈번), RAA

(에들레이드), RAC(퍼스), RACT(호바트), NRMA(시드니) 등 호주 6개 주의 대표 보험회사로 구성된 단체로 세그먼트 별로 5년 보유시 연간 평균 유지비를 계산해 발표해오고 있다.

현대차 i30는 중소형 승용 부문에서 폴크스바겐 골프를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으며 소형 SUV 부문은 기아차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 ix(현지명 ix35)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중형 SUV 부문에서는 기아차 쏘렌토가 포드 테리토리를 누르고 1위에 올랐고 다인승 차량(People

Mover)은 현대차 스타렉스(현지 판매명 iMax)와 기아차 카니발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의 K5(현지명 올티마)는 호주의 디자인 평가 기관인 GDA가 선정하는 '2011 호주 국제 디자인상' 자동차 및 승용 부문에서 푸조 3008과 함께 본상(Design award)을 수상했다.

K5는 스타일링, 안전성, 주행 성능 등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작년에는 현대차 쏘나타(YF)가 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는 최근 호주에서 소형 액센트 해치백 및 세단 모델을 출시했고 기아차도 이번주 리오 신차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판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광주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9월 9일까지 이용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추경안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는 이 기간 신고건에 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원사업자가 스스로 바로잡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 증서는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평소보다 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과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사무소는 관내 100여개 대규모 사업자와 20여개 공공단체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언론사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호남지역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는 (062)975-6819~22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79.87 (+86.56)
▲	코스닥지수	496.23 (+22.08)
▲	금리 (국고채 3년)	3.52% (+0.03)
▼	원·달러 환율	1070.00원 (-8.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짝!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